

원 본	세이코 신문	발행일	2017-07-01	면(面)	5
제 목	브라보 나의 인생 (31회)	내 용	꽃이 가득, 행복이 가득, 나이도 가득		
번역자	Y-TRANS	번역레벨	완직역	쫄직역	어중간
					쫄의역
				0	

꽃이 가득, 행복이 가득, 나이도 가득 - 103세의 혼잣말

[도쿄도 아시타구]

‘그저 오래 살았을 뿐이에요. 대단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나가노 스에씨(103) (니시쿠리하라지부 지구부부인부장)은 수줍게 미소짓지만 평범하진 않다. 머리를 툭툭치니 오칠조(五七調-와카나 시의 음수율중 하나)가 술술나온다. 그 시가 멋진 작품이 되어 대학노트나 포장지 뒷면에 직접 또박또박 글로 옮긴다. 자연을 노래하고, 일상생활을 솔직한 시선으로 표현한다. 이런 103세의 할머니를 만나보자.

으쌔으쌔 오래도 살았다
손도발도 너무 오래 부려먹었다고 파업
가타카나에 후리가나가 달린걸 좋아하는 100학년
고마워요, 덕분에 오래도 살고 있네요
잠시 커피한잔 하면서 생각에 잠겨봅니다
세상사 좋은일이 있으면 나쁜일도 있는 것
우리 보물, 야스코, 노리코라고 합니다(손주들)
감사하며 보석 같은 인생 살아갑시다
매일매일 도전하며 살고 또 살아가는 인생
마음이야 말로 소중하다고 환대
인생은 만나는 사람에 의해 바뀌는 것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린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 잊지말고
꽃이 가득, 행복이 가득, 나이도 가득
보은의 마음으로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하루하루
나의 좋은 보물, 좋은 스승, 좋은 벗, 좋은 가족
흰백합의 미소로 넘치는 그룹 좌담회
십오야(한밤중)에 옛날얘기로 꽃을 피워볼까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신심을
복운도 어리석음과 불평 때문에 까먹네
십계를 오가는 우리 인생
휠체어에 앉아 고개들어보니 떨어지는 꽃잎들
목욕을 마치고 창포로 감는 머리결

후지처럼 사람들이 올려보니 경로회
활짝 피어난 백합의 향에 추억이 떠오르네
마음속 한구석도 남김없이 대청소
활기찬 목소리로 일어서며 으쌰!!!
복숭아 향기 넘치는 행복미소의 궁궐
튀굴어 보는 연꽃밭의 하늘 빛
제철의 콩들이 손에 가득 넘치네
푸른하늘이 악몽이었던 종전일
밤으로 만든 밥을 혼자 먹는 저녁
앞일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구입한 5년 일기장
신심의 바통터치로 골인
최고의 인생이라고 가슴을 편다
마지막 날은 벚꽃의 꽃이 떨어지듯
보아라, 이 위대한 실증을
이 생명, 남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활기차게 모두 승리하는 도쿄 개가
사제불이 영원히 변치않는 사제불이
지금부터가 우리 인생의 반환점

(스에씨가 상급(上級)이라고 말한 시)

수지하기 어려운 묘법, 동지가 많으면
 늙어가는 나이도 잊어버리네
생애 청춘이라고 마음으로 정하면
 죽는 날까지 즐겁게 살 수 있다네
유유히 지휘하며 지켜가는 장년부
 광포의 사명에 용기 백배
빛나는 미소에 담겨있는 저력
 광선유포는 부인부에게 맡기고
하늘도 함께하는 기원의 창제월광의
 평화의 목소리에 화답하는 무지개
인옥의 갑옷도 언젠가는 풀려
 다시 조이는 일은 실의 힘이라

도쿄 메구로구에서 태어났다. 7남매중 넷째.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고, 나
츠메 소세키(소설가), 모리오가이(소설가, 번역가) 등의 문학전집을 좋아했다.

세파에 시달린 젊은 날들. 관동대지진으로 집도 타버리고, 대공습으로 갈 곳을 잃었다. 집에

소이탄이 떨어졌으나, 불발되어 목숨을 겨우 건졌다. 전쟁터에서 사망한 아들 소식에 ‘만세가 다 무슨 소용이냐’라며 쓰러진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쟁 후 어려웠던 시기에 일본의 부흥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결혼하면 행복해 질 것이라 믿었다. 금방 무너질 듯한 아파트에 살았다. 남편이 쓰러져 일도 하기 어렵게 되어 옷을 팔아 쌀을 샀다. 밤새 삭바느질을 했다. 매일 끼니를 거르기도 했다. 미래를 비관해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도 했다.

인생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은 1956년. 신심을 시작한 날, ‘우리 집안에 큰 기둥이 생겼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파리가 말꼬리를 붙으면 천리를 간다’는 대성인 어서 26쪽 말씀처럼 절복을 했다. 사람들은 ‘당신이 부자가 되면 하겠소’라고 하며 비웃음을 보냈다.

그래도 스승 근본으로 살았다. ‘생애 보물’로 간직한 이케다 선생님과 기념촬영한 사진(71년 12월)에는 여동생이 마련해 준 옷을 입고 참석했다. 그 후로 ‘인생의 스승을 모시는 것’을 있는 힘을 다해 전하고 다녔다.

(말)꼬리의 끝의 끝의 끝까지 붙어다녔다. 지금은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웃음 짓는 스에씨.

평소에 ‘상비약도 보청기도 안쓴다’

취미는 ‘단어퍼즐 맞추기’

장수의 비결은 ‘세상일에 신경 안쓰기’

노인 간호 서비스는 ‘아직 이른다’

딸이 가끔 스에씨를 ‘움직이는 화석’이라고 부른다

좋아하는 문구는 요시이 에이지의 ‘나 이외에 세상 모든 것이 스승’

자랑을 들자면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만 모인다’라고

신심 60년, ‘역시 솔직함이 최고, 도중하차하면 안돼요’라고 말한다.

앞으로 목표는 ‘실증을 나타내는 일이겠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언제 죽어도 좋다’

품격과 재치가 넘치는 스에씨, 그 멋스러움.

대단한 일이다.

좌식 식탁위에 편선지를 살짝 내려놓는다. 연필로 또박또박 7.5조 시를 써 내려간다.

그리고는 얼굴을 들어 따뜻한 시선으로 시를 내민다.

‘당신(취재기자)에게 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첫 만남에서 방그레 미소를 지으며 선물>

나도 그에 답하는 시구를 한 구절

<고마워요, 스에씨, 정말 고마워요>

이 정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끝>

「花いっぱい
幸せいっぱい
年いっぱい」

[illegible]

第31回 103歳のひとりごと

フラボー
やが
えん

[illegible]

青い空を夢であれ終戦日
要するは向きよく人にならざる
この先が分かれぬ川原に日記
信でこのトタツチでウツル日記
最高の生かすの胸抱き
終の日にあつたの歌の歌ふてへ
それ終戦の素直なとき美徳
この命をの使を果てまで
にきやうにみえで時と東京の歌
終弟不^{ハナ}永^{ナガ}あむりて夢来二
これかたがわが人生の折り
本はいわく蔵編
妙法の華麗に両まのむれば
さういへくも忘去るを
生涯を尊譽してに生半部
怒^{イカリ}ふし押押りする生半
広布の使便氣^{イカ}々々
輝ける美顔にめめし
天かける折の川原に日記
平の西^ニわけて虹立つ
窓のうらやまはけはけは
夢にうたの米の星を

東表は藤田氏の生宅。八合の
うだいの4番。幼い頃に引
つ込み願て、夏川源江、森越外
なとの文筆集を友とした。

時代、大正5年(1916)夏、
東大で遊學し、終つては、大隈
海峽に歸つた。家に親類が居たに
が、不愉快な命を遂げた。親類に
敗つた事を知らせた。「何ぞか
嫌だ」と叔から所ねた上母は、
服役の期間中、日目の夜間泊
を許さずともな却つた。

結婚すれば幸になつて得し
ていた。敗けは堪へずなデバ
に仕入。夫が倒れて働けな
なと、貴物をたかひ、夜を度
な経費の金で済んだ。日の暮る
に事欠くを囁らした。将来を
「子も連れて死つてしま
つた。」

人生を愛する坂(東表)の
は、9年(1918)期別列生。
を始めた日。「わが家といは姑
立ました。」

愛つてを待ちあわず、真
實に愛して自分の愛を
頭懸りの千裏を(東表)



家族とお出かけ。「縁がいっぱい、外は気持ちいい」



台所にも毎日立つ。得意料理は「煮物かなあ」



世界平和を祈り続ける

[illegible]